

“새 옵션 시험 기회”...동아시아컵서 파격 실험 나설까

벤투호, 오늘 홍콩과 남자부 1차전...15일 중국·18일 일본 맞대결

해외파 빠진 자리 K리거들이 메워...윤일록·김인성·이영재 관심

벤투호가 홍콩과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아컵)'에 나선다.

기존 대표팀을 이끌던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황희찬(27·지롱댕 보르도), 이재성(27·홀슈타인 킬) 등 유럽파가 빠지는 만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시도할 파격 실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홍콩과 동아시아컵 남자부 1차전을 치른다. 이어 중국(15일), 일본(18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대회 3연패를 노린다. 남자 대표팀은 2003년 초대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2008년, 2015년, 2017년 등 통산 4회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국 타이틀을 갖고 있다.

벤투호의 면면은 새롭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에 클럽들의 선수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다. 따라서 해외파는 대부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그 자리를 문선민(전북현대), 김보경(울산현대) 등 K리거들이 메운다.

벤투호의 수비진은 김승규(울산현대), 조현우(대구FC), 김민재(배이징 궈안), 김영권(김바 오

사카), 김진수(전북현대), 정예범(그레노블)이다.

관심은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의 변화다. 미드필더진에서 눈에 띄는 이름은 윤일록(제주 유나이티드)이다. 윤일록은 지난 2017년 11월 E-1 챔피언십 소집 이후 2년여 만에 발탁됐다.

아울러 한승규(전북현대), 김인성(울산현대) 등도 지난해 12월 아시아컵 소집 훈련 이후 1년여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이영재(강원FC)가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황인범(벤투버 화이트캡스), 나상호(FC도쿄) 등 벤투 감독의 부

름을 꾸준히 받은 선수들도 함께 한다.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등이 빠진 공격수 자리는 이정협(부산 아이파크)과 김승대(전북현대)가 메운다.

벤투 감독이 그간의 보수적인 선수 기용 스타일을 버리고 파격 조합을 선보일지가 관심사다. 그는 전날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회 3연패와 테스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한국이 이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선수들을 테스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비록 단기 토너먼트지만 새로 발탁된 선수들을 시험하고, 예전에 소집되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9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도 활약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선수 조합과 새로운 옵션을 시험해서 이번 대

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강한 팀들과 맞붙기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손흥민 경기력, 호날두보다 8계단이나 높아...유럽 17위

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원 발표...세계 최고는 발롱도르 6회 수상 빛나는 리오넬 메시



지난 8일 번리전에서 인생에 남을 '월드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의 경기력이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유럽 무대에서 17위로 평가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원(CIES)은 10일(한

국시간) 유럽 35개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을 수치로 매긴 '2019-20 인스탁 퍼포먼스 인덱스'를 발표했다.

손흥민은 337점을 받아 프랑스 리그1 올림피크리옹의 뎀피스 데파이, 파리생제르맹의 마르코 베라티와 함께 공동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 중에서는 리야드 마레즈(4위), 케빈 더 브라위너(9위·이상 맨체스터시티), 앤드류 로버트슨(10위), 버질 반 다이크(공동 11위), 사디오 마네(공동 11위·이상 리버풀), 라힘 스텔링(16위·맨체스터시티)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는 최고 순위였다.

손흥민은 2019-20 EPL과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등을 통틀어 10골 9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EPL 16라운드 번리전에서는 70여m를 12초 만에 주파하며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에 이은 골로 자신의 4시즌 연속 두 자릿 수 골을 기록했다.

CIES가 꼽은 세계 최고의 선수는 리오넬 메시다. 리오넬 메시는 유일하게 총점 400점을 넘는 수치(401점)로 순위표 최상단을 차지했다.

이 뒤를 하킴 지예흐(아약스), 칼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망) 등이 이었다.

한편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는 공동 25위(332점)를 기록, 손흥민보다 8계단이나 아래에 머물렀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훈련방식 변화준 박병호,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거포' 박병호(33)가 더 무서운 강타자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근력은 유지하고 민첩성을 기르는 훈련방식을 도입하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시즌을 기대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장에서 만난 박병호는 "기술훈련은 아직

안하고 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며 "매일 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을 조금 바꿨다"며 "전에는 근력 위주로 많이 했다면 올해는 민첩성에 중점을 두고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호는 올해 12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0 98타점(7위) 92득점(3위) OPS 0.958(2위)을 올렸다. 33홈런을 쳐낸 그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KBO리그 대표하는 강타자로서 면모를 독특히 보여줬다.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치른 박병호는 누구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골바로 테크니컬을 달고 야구 국가대표전 프리미어 12 대회에 나섰다.

그는 "프리미어 12 때문에 일정이 빽빽하게 느껴지지만 예년과 비슷한 것 같다"며 "운동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훈련방식에는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

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민첩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박병호는 "올해 잔부상을 많이 해서 전신을 쓰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방식을 바꿨다"며 "어떻게 보면 내년 새로운 도전이다.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지만 믿고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손혁 감독과의 호흡도 기대한다.

그는 "감독님으로 선임된 이후 깊게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감독님이 코치를 지낼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대화가 잘 통했다"며 "호흡은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병호는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2012~2014년,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다섯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강정호(4년)를 제치고 키움 선수로는 최다 수상 단독 1위에 올랐다.

박병호는 수상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 이상을 받는데, 받을 때마다 기쁘다. 키움 코칭스태프, 선수단 모두가 한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명품하는 행복의조반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